

‘당사기(唐沙器)’ 考*

장 남 원**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선행연구 검토
3. 唐沙器의 의미
4. 沙器契와 沙器塵
5. 맺음말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의궤와 사료 검토를 통해 ‘唐沙器’의 용례와 의미를 추론해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기계와 반사기계, 당사기계 등 서로 다른 주체들을 통해 왕실에 도자기를 조달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조선 후기 백자에 대한 연구가 분원의 운영과 변화과정에 주목했다면, 본 연구는 의궤 기록 등을 통해 분원 자기의 왕실 납입이 일찍부터 공계의 운영구조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당사기계, 사기계, 반사기계 등이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용례를 통해 ‘당사기’ 혹은 唐器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 해 보았으며, 기록과 출토품을 통해 ‘당사기’가 중국도자기 뿐 아니라 조선에서 제작된 중국풍 백자를 의미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록자료를 통해 사기계의 명칭과 역할은 18세기 중반경부터 확인되었는데, 이는 영조대 『貢弊』가 출간되어 사기계의 역할을

* 본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재원을 지원 받아 수행한 연구로(NRF-2022S1A5C2A02092180), 2023년 11월 24일 개최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정기학술대회 <조선시대 공예문화의 장면들>의 발표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張南原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celadon63@ewha.ac.kr
투고일: 2024. 5. 6. 심사완료일: 2024. 6. 27. 게재확정일: 2024. 6. 27.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4.46..127>

알 수 있었던 정황과도 맞물린다. 결국 17세기 대동법 실시와 18세기 말 장인등록제 폐지에 따른 수공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왕실은 일정한 현물을 확보해야 했고, 분원자기도 생각보다 일찍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18세기 중반에는 이미 貢契로서 여러 사기계가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즈음하여 당사기계도 출현했을 것으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도자사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분원의 변화 과정에서 왕실도 진상자기 외에 구매를 통해 수요를 감당하게 되면서 재정악화와 분원자기 생산의 통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19세기 말에는 민영화로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살펴본 바대로 이미 왕실에서도 당사기계를 통해 甲器나 畵器같은 기물들을 조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세기 중반 이후의 각종 의궤 기록과 함께, 17세기말~18세기초에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광주군의 관요지에서 당사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명문이 적힌 요도구가 발견되어 분원 자기 조달 방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각종 사기계의 등장과 唐沙器 같은 청화백자 내지는 고급자기 등을 각별하게 인식하면서 제작과 유통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 이미 18세기 전반 이후부터로 소급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핵심어 | 당사기(唐沙器), 당기(唐器), 사기계(沙器契), 분원(分院)

1. 문제의 제기

15세기 후반 경기도 廣州牧 磁器所가 司饗院 통제 아래 놓이게 되면서 관영자기공장으로서 조선의 官窯가 운영되었다. 세조 12년(1466) 이미 번조된 것을 제하고 進上만을 허용하며 公私를 막론한 백자의 사용을 통제했다. 아예 貢物 분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공납을 빙자한 사사로운 제작 폐단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白土 산출 所在邑에서도 기록을 남겨 盜用하지 못하도록 했다.¹⁾ 또 1467년에는 司饗房을 사용원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祿官을 두어 백자제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제도 개편을 통한 왕실전용 백자의 제작여건을 마련하였다.²⁾ 이처럼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 왕실용 도자기로서

1) 『世祖實錄』 卷39, 世祖 12年 6月, 丙午.

백자의 생산을 전담하게 되면서 지방 토산 공물로 조달되던 분청사기와 도기의 제작지는 그 수가 대폭 감소하게 된다.³⁾ 이후 성종 16년(1485)에 완성·반포한 『경국대전』에서도 사옹원은 供御膳 및 闕內供饋 등의 업무를 관장했음을 알 수 있다.⁴⁾ 17세기 이후에 관요는 ‘分院’이라고 불렸고 지속적으로 사옹원의 관리 감독 아래 놓여 있었다.⁵⁾ 사옹원과 內需司의 京工匠에 속한 사기장들은 왕실의 柴地내에서 중앙 재정으로 마련된 원료를 사용하여 왕실용 백자를 제작해왔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이후 진상사기의 증가와 왕실 및 민간의 외국산 자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분원 본래의 취지를 견지하기 어려워지며 점차 생산품의 질이 하락하면서 1883년 공인들과 일부 장인들에게 그 운영권이 이양되었다.⁶⁾ 결국 1895년 燐磁會社로 바뀌면서 각종 민간 생활용 자기 외에 왕실의 주문을 받아 납품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분원의 변화과정 속에서 18세기 이후 새롭게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다. 즉, 儀軌나 사료 등에는 새롭게 ‘沙器契가’ 등장하며 18세기 후반 이후부터 19세’말 경까지 왕실 행사에 조달하는 도자기의 조달과 관련하여 沙(砂)器契, 常沙器契, 唐沙器契 등과 같은 담당 契名을 구분하여 표기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날의 동일한 행사에서 함께 사용되는 백자 조달에서도 그릇 종류에 따라 각각의 사기계가 납입을 담당하고 있었음도 확인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관련 기초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당사기’의 실체에 조금 더 다가가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기계와의 관계등에 주목함으로써 조선 후기 분원의 운영, 특히 왕실소용 백자의 납입과 유통에 대한 여러 운용

2) 『世祖實錄』 卷42, 세조 13年 4月, 己亥.

3) 전승창, 「京畿道 廣州 官窯의 設置時期와 燐造官」, 『미술사연구』 22, 2008, pp.199-219.

4) 『經國大典』, 吏典, 正三品衙門條.

5) 관요의 명칭과 성격의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박정민, 「조선 전기 관요의 성립과 그 명칭에 대한 일고찰」, 『미술사와 문화유산』 3, 2014, pp.85-114.

6) 방병선, 「고종 연간의 분원 민영화과정」, 『역사와 현실』 33, 1999, pp.183-216.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다르게 분원자기의 왕실 납입이 비교적 일찍부터 貢契의 운영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 唐沙器契를 비롯한 ‘당사기계’가 연결되어 활동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唐沙器’라는 명칭은 주로 18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인된다. 그 성격에 대해서는 청화백자 또는 중국자기와 조선백자의 관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어왔으며 독립적인 주제로 심화 고찰된 적으로 없다. 당사기는 ‘唐器’로 표기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주로 조선후기 백자, 혹은 중국도자와의 연관성 연구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미경은 19세기 조선백자와 淸의 영향관계를 살피는 과정에서 특히 純祖(1800~1834 재위)시기 기록에 나타나는 進爵用 기물을 공조나 사옹원, 반사기계, 당사기계 등에서 진배를 담당했던 것에 주목하였다. 이때 ‘당사기계’는 청에서 수입된 자기를 취급하던 주체로서 唐大樑, 唐砂鉢 등의 진배를 맡았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19세기 이후 급증하는 중국 청대자기의 유입과 청대 조형을 차용한 분원백자의 예로서 중국자기의 영향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했다.⁷⁾ 즉, 당사기는 중국산 도자기이며, 당사기계가 해당 물품들을 유통 납품했던 것으로 본 것이다.

최경화는 조선후기 사회변동과 이에 따른 사치풍조를 경제적 풍요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내적 요인과 함께 활발한 대외무역을 통해 중국 및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많은 양의 사치품들이 국내 사치풍조를 더욱 조장했고, 이갈

7) 김미경, 「19세기 조선백자에 보이는 청대 자기의 영향」, 『강좌미술사』 33, 2009, pp.293-327.

은 배경 아래 중국과 일본 자기의 국내 유입이 용이했던 것이라 보았다. 특히 정조대 검소함에 대한 숭상의 분위기에서 匣器와 彩畫자기에 대해 금제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러한 조치가 결국 부호들로 하여금 중국 및 일본 자기 사용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 본 것이다.⁸⁾ 특히 도자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1637년부터 1894년 사이에 燕京使行이 무려 679회에 걸쳐 시행되었던 점에 주목하고, 이 가운데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의 사항이 280여회에 달해 조선 말기로 가면서 대중국 교류가 급격히 증가했으므로 중국자기의 유입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18세기 중 후반 각종 진연이나 嘉禮 등에 나타나는 唐器를 중국자기로 파악했다. 특히, 1795년의 『園行乙卯整理儀軌』에는 3,830개의 당기(鉢 500개, 湯器 250개, 接匙 2,300개, 鍾子 700개, 瓶 30개, 鑪臺 50개 등)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이같은 정황을 행사의 명분과 의의를 연관지어 해석하였다. 또 20세기초 연향 기록들에서도 8,000개~58,000개에 달하는 당기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大韓帝國期(1897~1910) 황실의 존엄과 정치적 주권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았다.⁹⁾

김은경도 光武 5년(1901) 孝定王后 洪氏의 71세 고회연을 기록한 <辛丑進饌儀軌>에서 중국산 洋彩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심지어 당사기 8,364여점이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뿐만아니라 광무 6년(1902) 高宗(1897~1907 재위)의 望六旬進宴에서¹⁰⁾ 당사기가 무려 65,669점이 사용되어 1년 만에 당사기 사용량이 8배 증가하는 등 연회용 그릇을 倭沙器에서 당사기로 대체하는 과정은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 고종의 황제 즉위와 함께 天子國으로 격상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조선이 황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 의례를 황제국 제도로 격상했던 점에 주목했다. 특히 1899년에는

8) 최경화, 「朝鮮後期 分院里 時期 官窯白磁 研究 -1752-1895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논문, 2013, pp.102-104.

9) 최경화, 위의 논문, pp.114-116.

10) 『進宴儀軌』, 1902. 望六旬進宴은 51세에 치러진 진연을 기록한 의례.

<大韓國·大清國通商條約>이 체결되었으므로 대한제국 왕실 연회 등에서 중국 자기의 사용이 당연히 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琺瑯磁器를 구득함으로써 조선이 청과 동등한 천자국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표방했다고 해석했다.¹¹⁾

그런데, 앞의 연구들이 조선과 중국, 대한제국과 대청국의 관계속에 중국 자기의 유입이 용이했고, 또 그럴만한 명분이 있는 정황이었음을 밝히면서 ‘당기’ 또는 ‘당사기’를 중국산 자기였을 것임을 주장한데 반해 다른 견해를 보이는 연구도 있었다. 장효진은 19세기 말 朝·淸간 외교문서를 집성한 『華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자기의 모방제작을 위해 조선 왕실이 주체적으로 움직였던 사례를 밝혔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조선 왕실은 중국의 內地 사정에 밝은 江西출신 淸國人을 통해 景德鎮 도공을 고용하고 원료 및 제작 도구를 조선으로 유입했다. 또 1885년에는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이 직접 분원 貢人에게 조선내 중국인이 자기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제공할 것을 지시한바 있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조선주재 프랑스 공사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 1887~1891/1896~1906 한국근무)는 ‘(조선이) 청국의 것을 모방한 도자기 공장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남겨 조선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중국의 자기 제작기술 흡수가 추진되고 있었음을 추론하였다.¹²⁾ 즉, 완성품 도자기의 수입외에도 기술과 장인이 도래했고, 결과가 확실치는 않지만 그 과정에 분원이 직접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 노지현은 의궤등의 기록에 나타난 ‘당기’나 ‘당화기’ 등을 조선에서 제작한 중국풍 백자로 보았다. 즉, 당화기는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혹은 중국 풍의 도안, 기형이 적용된 자기로, 조선 후기 왕실 연향에는 유기(鑪器)와

11) 김은경, 「朝鮮의 淸琺瑯磁器 유입경로와 수용태도 연구」, 『미술사학』 37, 2019, pp.115-140.

12) 장효진, 「19세기 말~20세기 초 중국 요업(窯業) 공장(工匠)의 조선 도래」, 『한국문화연구』 32, 2017, pp.7-38.

함께 최고급 기물로 인식되어 왕실 최상위층을 위해 배설되었다고 보았다. 을묘년(1795) 의례나 19-20세기 연향에는 수백에서 수 만점의 당화기가 반상기로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당시 조선과 청국이 모두 대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특히 당화기를 중국산 자기라고 한다면, 18세기 말부터 백련교(白蓮敎)의 난(1796-1804)과 아편전쟁(1840-1842), 태평천국의 난(1851-1864) 등으로 중국 남방 지역의 상공업이 초토화되었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태평천국의 난으로 강서성 경덕진은 군사적·지리적 요충지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요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된 점, 특히 1853년(철종 4, 함풍3) 淸皇室에 반감을 품은 태평군은 경덕진 浮梁縣에 도착해 御窯廠을 공격했던 점을 지적했다. 이에 1855년(哲宗6, 咸豐5)경 요업이 중지되었으므로, 同治帝(1861-1875 재위) 즉위 후 1864년 태평군을 평정할 때까지 경덕진은 침체기였다고 보았다. 1866년, 동치제의 大婚禮用 자기 생산을 위해 어요창을 정비하고 復設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그 요업규모는 乾隆시기(1735-1796)에 비해 1/3로 줄어든 상태였다. 따라서 조선 왕실이 사용할 만한 고급 반상기가 경덕진에서 생산되어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미약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즉, 조선왕실은 고급 기물의 충당을 위해 중국 자기를 模本으로 한 ‘조선산 당화기’의 생산을 추진했을 것으로 보았다.¹³⁾

3. ‘唐沙器’, ‘唐器’, ‘唐畫器’ 사례

검토한 바 ‘唐沙器’라는 용어는 대략 18세기 이후 기록자료에 자주 등장한다. 비교적 이른 사례에 해당하는 18세기 중반 영조35년(1759) 5월 항목을

13) 특히, 국내에서 청 황제의 연호를 명문으로 새긴 함풍년제(1850-1861)銘 백자 등이 제작된 점 등을 조선산 당화기의 제작 가능성의 예로 보았다. 노지현, 「조선후기 백자의 박취문[蝙蝠文]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21. pp.135-140.

보면, “唐沙器 窠간 1間 3面”이라는 내용이 있다.¹⁴⁾ 의궤의 해당 내용이 있는 전후로 다른 관련 내용을 찾을 수는 없지만 「修理所儀軌」에서 각종 시설과 그 세부 보수 및 그에 소요되는 물품들을 기록한 내용중에 언급되었으므로, 분명 당사기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765년(영조41) 和吉翁主(1752-1772) 가례에도 각종 물품 진배처로 당사기계가 기입되어 있으며¹⁵⁾ 이후 1770년대 이후로는 당사기계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고 있다. 1777년(정조1)의 『景慕宮樂器造成廳儀軌』, 1778년(정조2)의 『英宗大王實錄廳儀軌』, 1793년(정조17) 『日省錄』의 비변사 관련 내용 등을 비롯하여 현재 藏書閣, 奎章閣의 원문검색을 통해 파악되는 항목들만도 280건이 넘는다. 대부분 일정한 행사등에서 사용할 도자기에 대한 物目을 열거하는 내용들이다. 소용되는 도자기의 명칭이나 종류를 설명한 후, 당해 항목에 後添하여 기물납입 책임처를 기입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물을 일일이 분류하고 후첨된 납입자를 서로 맞춰보면 당시 ‘당사기계’에서 취급했던 백자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⁶⁾ 예를 정조 2년(1778) 기록을 보면 堂上官과 郎廳의 進止에 사용할 받침대가 있는 흰색 백자와 2개가 여러 다른 물품들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납입처 가운데 도자기를 취급하는 주체로는 唐沙器契와 盤沙器契가 보인다.¹⁷⁾ 『英宗大王實錄廳儀軌』 下의 ‘校正廳捧甘秩’ 부분에서 1780~1781년에 해당하는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1>

14) 『嘉禮都監儀軌英祖貞純王后』, 「修理所儀軌」, 手本秩 己卯5月, 英祖35년(1759) 5월 일.

15) 『和吉翁主嘉禮膳錄』, 「甘結秩」.

16) 해당 사례에 대한 상세 요소들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심화하고자 한다.

17) 『英宗大王實錄廳儀軌』 下, 「一房膳錄」, 1778년 2월 13일. 一房, 二房, 三房 등은 重修都監내 하위부서.

〈표1〉 의궤의 자기소용 내역 납입책임(혹은 재원)

	내용	도자기	납입책임 (재원)
1780년 8월 26일	본청의 당상과 낭청이 개좌할 때 사용할 茶甫兒 1개, 받침대가 있는 磁碗 1개, 沙鉢 1넛을 즉각 진배하 는 일.	茶甫兒 받침대가 있는 磁碗 沙鉢	平市署 唐沙器契
10월 6일	받침대가 있는 차보시기 1좌, 등잔 심지로 쓸 去核 1냥, 보통 종 지 5개를 즉각 진배하는 일.	받침대가 있는 磁碗 보통 종지 5개	호조, 제용감 唐沙器契 常沙器契
10월 24일	실록의 중초에 들어갈 풀가루 3되 를 진배하며, 받침대가 있는 차보 시기 1좌를 진배하는 일.	받침대가 있는 磁碗	禮賓寺 唐沙器契
11월 17일	쓰고 나서 돌려주는 조건으로 사기종지 5개를 진배하는 일	사기종지	常沙器契
1781년 1월 6일	도감의 당상관과 낭청 방의 광명 대(光明臺) 3개, 종지 5개, 받침대 가 있는 차보시기 2좌를 즉각 진배 하는 일	종지 5개, 받침대가 있는 磁碗 2좌	唐沙器契 常沙器契 繕工監
1월 18일	당상 1명의 방을 도배하는 데 들어 갈 백후지 1근, 풀가루 1되, 도배군 2명 및 자연(紫硯) 1부, 연적 1좌를 진배하고 대령하는 일	硯滴 1좌	沙器契
1월 19일	본청에서 사용할 닛요강 1좌와 沙唾口 1좌를 진배할 일.	沙唾口 1좌	戶曹, 工曹, 沙器契

위 항목들 가운데 중복되는 경우는 받침대가 있는 자기제 완인데, 이 경우
는 공통적으로 ‘당사기계’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어떤 문양이 있는 기물인지, 청화백자인지 아니면 무문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항목에 언급된 ‘상사기계’의 취급품인 ‘사기종지’와는 다른 품질 내지 기형의 백자였음을 짐작할 수는 있다. 그리고 납입자로서의 ‘당사기계’는 청화백자 같은 특정한 조형을 가진 백자만을 취급한 것이 아니라 청화백자는 아니더라도 특별한 용도의 품질 좋은 백자들도 포괄적으로 취급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각종 의궤류에서 ‘唐沙器契’가 도자기를 취급 조달하는 주체로서 표현된 것이었다면, ‘唐器’라는 용어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사례를 보자. 1772년의 『璿源譜略修正時校正廳儀軌』에는 ‘唐大貼’, ‘唐沙鉢’이라는 용어가 직접 등장한다.¹⁸⁾ 품목중에 菓子 1개¹⁹⁾가 있어서 당대접과 당사발은 왕실의 족보인 『璿源譜略』를 교정할 때 사용할 붉은 염료 片臙脂를 가는데 사용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편연지는 왕실 御眞 등을 제작할 때 사용했던 고급염료였으므로 곱게 갈거나 섞는 과정에서 당사발이나 당대접 같은 청화백자 내지 고급백자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²⁰⁾ 이는 조선 중기 이후 기록에서 확인 되는 화원들에게 지급되던 안료 혼합 등을 위한 작업용 백자들이 沙鉢, 常沙鉢, 白沙鉢, 沙甫兒, 沙平甫兒 등으로 명기되었던 것과 비교하면²¹⁾ 같은 종류의 안료를 취급하더라도 목적에 따라 사용했던 백자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추정된다.

한편,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 1891-1931)는 『朝鮮陶磁名考』에서 “중국 산 사기에 그림이 그려진 것을 唐畫器, 唐沙器 등이라 한다. 그 견본을 본떠 구운 것은 조선에서 만든 것이라도 唐器라 불렀다는 내용이 옛날 분원의

18) 『璿源譜略修正時校正廳儀軌』(1772), “右甘結爲進排事今此 璿源譜略修正時畫員印札 所用片臙脂貳片 唐大貼唐沙鉢各貳 式菓子壹介等 物進排事”(戶曹 濟用監 唐器契)

19) 菓子は 약이나 재료등을 분쇄할 때 사용하는 막대형 갈개.

20) 片臙脂는 식물류에서 채취한 적색의 유기염료로서 납작한 형태로 가공되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됨. 서예진, 『『영정모사도감의궤(影幀模寫都監儀軌)』에 수록된 편연지 재현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8. pp.10-14.

21) 한혜선, 「17세기 의궤 속 화원이 사용한 백자의 종류와 지급방식」, 『한국문화연구』 42, 2022, pp.39-75.

기록에도 남아있다”라 했다.²²⁾ 이는 문양이 그려진 중국산 도자기와 그같은 중국산 문양도자기를 본떠 조선에서 만든 것을 구분하여 불렀음을 명시한 것이다. 즉, ‘당사기’나 ‘당화기’는 중국산, ‘당기’는 조선산으로 명칭에 차이가 있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례나 사료 원전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했던 정황을 찾지는 못했다.

유추할 수 있는 사료 가운데, 성종8년(1477)의 기사가 있다. 세간에 중국산 청화백자가 유행하면서 이를 폐단이라 여긴 상소이다. ”김영유(金永濡)가 아뢰기를, ‘지금 豪富의 집에서 청화기를 다투어 쓰는데, 唐物은 저절로 올 수 없는 것이라, 반드시 수송해 오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폐단이 작지 않으니, 청컨대 엄히 금하소서’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중국의 물건을 무역하지 못하도록 일찍이 이미 법을 세웠으니, 그것을 거듭 밝히라’하였다.”는 것이다.²³⁾ 중국 물건들을 ‘唐物’이라 칭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사한 용어로 조선 후기까지도 통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조선 후기 의례류나 사료에서는 당화기나 당사기가 중국산 백자 가운데 문양이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그리고 앞의 <표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唐器나 唐畫器로 명시되지 않은 일반 백자로 만든 사발이나 찻잔등을 납입하는 경우라도 ‘당사기계’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자기의 조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례로는 1848년(憲宗14年)의 『進宴儀軌』를 통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무늬 있는 중접시 120개, 무늬 있는 소접시 100개, 무늬 있는 사발 50개, 무늬 있는 국그릇과 보시기 각 40개, 무늬 있는 종지 100개(이상 唐器)”라는 내용이 있다. 이 때 청화백자로 추정되는 기물에는 “畫000” 식으로 접두어를 붙여 구분했으며, 목록 말미에

22) 아사카와 다쿠미 지음/ 심우성 옮김, 『조선의 소반·조선도자명고』, 학고재, 1995, p.188.

23) 『成宗實錄』成宗 8年, 丁酉, 閏 2月 10日, “永濡曰, ‘今豪富之家, 競用靑畫器, 唐物非能自來, 必有輸來之者. 其弊不賞, 請痛禁’ 上曰, ‘勿貿唐物, 曾已立法. 其申明之.’”

이들을 唐器로 통칭하고 있다.²⁴⁾ 그런데 같은 의례의 器用편에서는 “무늬 있는 중접시 30개, 무늬 있는 소접시와 무늬 있는 대접, 무늬 있는 보시각 20개씩, 무늬 있는 사발 30개, 무늬 있는 국그릇 30개, (이상 門器)”라 했다. 이 경우 청화백자로 추정되는 소요 기물에 대해서 ‘門器’라는 용어를 부친한 것이다.²⁵⁾ 이 때 ‘門器’는 기물의 종류라기 보다 앞서 살펴본 ‘唐沙器契’나 ‘常沙器契’ 또는 ‘沙器契’의 경우처럼 열거한 백자들을 조달한 주체를 의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재원을 댔던 주체가 軍門이었음을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면²⁶⁾ 유사한 의례들에 기록된 ‘당사기’, ‘문기’나 ‘당기’ 등과 같은 구분이 기물의 품질이나 종류와 연관될 수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 해당 기물을 조달하는데 재원을 제공하거나 기물의 원 소유주를 의미하는 표현일 수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같은 의례에서 각종 도자기를 수급하는 주체, 내지 방법으로서 ‘廚院’, ‘內下’ 등으로 후첨 기재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사기계와 같은 외부 주체가 직접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원이나 궁궐내에 보유하고 있던 기물을 재출납하여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신규 물품이더라도 사용원 등이 직접 발주하여 조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²⁷⁾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당사기’, ‘당기’ 또는 접두어로 ‘唐’이 붙은 도자 기물의 용례를 살펴보았다. 관련 용어가 사료에 등장하는 것은 대략 18세기 중반경부터였으며, 상대적으로 고급으로 문양이 있거나 채색이 된

24) 『進饌儀軌』 2, 憲宗14年(1848), 器用, “...畫中樑匙十二竹, 畫小樑匙十竹, 畫砂鉢五竹, 畫湯器畫甫兒各四竹, 畫鍾子十竹(以上 唐器)”

25) 『進饌儀軌』 2, 憲宗14年(1848), 器用, “畫中樑匙三竹, 畫小樑匙畫大樑畫甫兒各二竹, 畫砂鉢三竹, 畫湯器一竹畫鍾子二竹(以上 門器)”

26) 최우혁, 「19세기 진찬의례와 군문의 재정 활용」, 『국학연구』 45, pp.231-275.

27) 『進饌儀軌』 2, 憲宗14年(1848), 器用, “...中缸小缸各二十七箇(以上內下)”. 그외『荷齋日記』1, 辛卯年(1891) 二月의 일기 내용중에는 왕실의 명을 전하는 공사청 지사가 공인이었던 지규식에게 內下할 기물에 대한 件記와 本器(한국고전종합DB 원문번역에 의하면 견본물품)를 가져와서 필요한 자기의 물품제작을 독려하는 대목이 있음.

백자들에 대한 지칭으로 추정된다. 한편, 藏書閣 소장 966점의 왕실 발기[件記]중 복식 관련 발기 현황을 분석하여 주제별로 의대·의복류 286점, 패물류 56점, 옷감류 152점으로 대분류하고 주제별 복식 특징을 고찰한 연구에서는 왕실 발기의 경우 동일한 복식에서도 왕위 계승자 신분과 그보다 낮은 왕실 인물들 간의 용어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²⁸⁾ 따라서 도자기 명의 경우에도 혹시 동일 기물에 대한 사용자에 따른 용어의 차등을 보이는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근래에 경기도 광주군 관요지 조사에서 매우 유의미한 자료가 발견되었다. 경기도자박물관 조사팀이 실시한 경기도 광주군의 궁평리 1, 2호 가마터 시굴조사에서는 백자 접시를 뒤집어 덮어 요도구인 匣鉢의 뚜껑으로 재활용한 기물 파편이 수습되었다. 기물 내면에는 ‘元左/白完一火三內/白甫兒一火/唐甫一火二內/白占00’(추정) 이라는 내용을 철화 안료로 쓰고 번조한 것이다.²⁹⁾ <표2> 함께 수습된 출토품 등으로 보아 궁평리 요지의 조업시기는 17세기 후반~18세기 초 정도로 추정되며, 청화백자편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명문중에 ‘白完’, ‘白甫兒’, ‘唐甫’는 기물의 명칭을 기록한 것으로서 각각 백자완, 백보아(백자 보시기), 당보아(청화백자 보시기) 등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기물명과 조합된 숫자는 번조시 기물이 놓이게 된 가마 칸의 위치등을 표기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 내용이 단순한 翳字인지, 또는 궁평리 요지의 생산품 내지 생산품의 번조 및 납품과정과 직접 연관이 있을지는 조금 더 유사한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다만, 분원의 생산과 연관되는 것이라면, 당보아 즉, 당사기(또는 唐器)가 분원에서 제작되

28) 순종비에 대해서는 唐古衣와 小古衣를 입는 것으로, 경빈김씨에 대해서는 唐衣服과 衣服으로 표기했는데, 이는 동일한 복식일 경우라도 후비와 왕세의 신분 차이에 따라 명칭을 달리한 것으로 보았다. 이명은, 장서각 소장 왕실 발기의 주제 분류와 복식자료 고찰, 장서각42, 105-145.

29) 저경7.4cm 잔존높이 4.9cm, 경기도자박물관 발굴, 경기도 광주군 궁평리1,2호 요지출토.

고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따라서 ‘당사기’는 중국산 수입자기 외에도 분원에서 만들어진 모종의 백자들은 지칭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표2〉 광주 궁평리 1,2호 백자요지 출토 요도구
(『궁평리 1,2호 백자요지』, 경기도자박물관, p.463)



그렇다면, 서울시내 유적에서 출토되는 중국산 청화백자나 채회자기류 외에 18세기 이후 의궤에 등장하는 수많은 唐器들이 분원에서 제작된 중국풍 백자를 포함한다고 하면 왕실이나 사기계에서 인식하고 있었던 ‘조선에서 제작된 중국풍 자기’류는 어떤 것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18~19세기에 급격히 늘어나는 중국풍의 청화백자류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본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국 강서성이나 복건 지역 민요에서 유행한 靈芝草花文 청화백자류와<그림1>³⁰⁾ 보상당초문 청화백자류<그림2>, 單色彩백자류<그림3>³¹⁾, 壽福字文 청화백자류<그림4>³²⁾처럼 그리고 덕화요의 그것과 흡사한 양각백자류<그림5>³³⁾, 박쥐문 청화백자<그림6>³⁴⁾ 처럼 구체적으로 그

30) 장효진, 「18~20세기초 中國 靈芝草花文 靑畫白磁의 유행과 전파」, 『美術史學研究』 282, 2014, pp.117-149.

31) 이보름, 「조선후기 채색(彩色)백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18.

32) 박혜원, 「朝鮮末期 壽福字文 靑畫白磁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석사논문, 2011.

33) 구혜인, 「朝鮮 後期 陽刻白磁 研究」, 『美術史學研究』 263, 2009, pp.99-137.

34) 노지현, 「조선 후기 백자의 박쥐문[蝙蝠文]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

구성이나 묘사가 유사한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그밖에 크락양식 청화백자들 <그림7>³⁵⁾이나 網紋 청화백자<그림8>³⁶⁾, 산수문 청화백자<그림9>³⁷⁾ 처럼 중국과는 시간차이를 보이지만 일본 등지에서도 유행했던 새로운 양식의 청화백자들이 해당될 것이다. 그리고 청대 화당초문 자기류<그림10>³⁸⁾처럼 상대적으로 청화장식이 풍부한 중국풍 자기들도 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림1〉 백자영지초화문 접시,
입지름20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2〉 백자보상당초문 청화백자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과 석사논문, 2021.

- 35) 김기혜, 「조선 후기 크락(Kraak) 양식 청화백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15.
- 36) 박수정, 「17~20세기 동아시아 망문(網紋)백자의 제작과 확산」, 『동양미술사학』 17, 2023, pp.171-197.
- 37) 이수미, 「朝鮮後期 山水文 靑畵白磁 研究」,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13.
- 38) 송인희, 「1848년 진찬의궤의 당화준(唐畵樽) 사용의 의의」, 『한국문화연구』 40, 2021, pp.81-132.



〈그림3〉 백자청채반룡장식
먹항아리
높이4.3cm, 바닥지름5.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4〉 백자청화수복자문 발
높이12.5cm, 입지름25.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5〉 백자양각매화문 주자
높이17.7cm, 몸지름16.1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6〉 백자청화박쥐문 발
높이10cm, 입지름23.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7〉 백자청화화문 발
높이9.5cm, 입지름16.5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8〉 백자청화 망문백자들
높이2.9cm, 입지름9.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9〉 백자청화산수문 호
서울시 유형문화재 314호,
높이35.8cm,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그림10〉
백자청화녕쿨무늬병
높이 31.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4. 沙器契와 沙器塵

앞 장에서 당사기 혹은 당기, 당사기계 관련 사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沙器契’, ‘盤沙器契’, ‘常砂器契’ 등의 명칭이 지속적으로 함께 사용되며, 기물의 종류 내지 납입 또는 재원조달 주체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본고의 서두에서 전제한 것처럼 관요로서 분원의 운영과 왕실용 도자기의 생산 및 조달은 사용원을 통한 진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왕실용 자기의 조달과정에 여러 沙器契가 관여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 주로 18세기 이후 의궤 기용편 등에서 도자기 납입 주체로서 ‘契’가 나타나고 있었다.

관요를 통해 왕실전용품을 제작 납품하던 분원자기가 사기계를 통해 왕실에 납입되는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조선 후기에 대동법이 실시되고 전국적으로 場市가 발달하면서 국가의 통제는 약화되었고 18세기 한양이나 지역의 도성에서는 亂塵이 발생하면서 유통 질서가 어지러웠다. 전통적인 공시인의 국역부담이 커졌고, 왕실, 군문, 권세가로부터의 침탈도 심해졌다. 이에 정부는 재정적자에 시달렸고, 공물체계 또한 흔들렸다. 공시인을 비롯하여 난전, 私商들이 권세가들 및 중앙관서들과 얽혀 많은 문제를 초래했다. 화폐가 통용되면서 정부가 물자유통을 장악하는 재분배 체제에 위기가 닥쳤지만,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재분배 체제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졌던 것 같다. 시장에 일부를 빼앗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전체제와 정부의 현물조달 체제는 기어이 유지하려고 했다. 이에 왕실은 비변사 같은 상위 권력기구를 통해 공물의 유통을 바로잡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³⁹⁾

그리고 그 혼란을 타개하고자 영조(1724-1776 재위)연간 이후 매년 국왕이 貢人과 契人, 市廩상인에게 그 폐단을 물어보는 ‘貢市人 詢廩’이 시행되었다.⁴⁰⁾ 이에 備邊司의 제조 중에서 貢市堂上을 임명하고 왕명에 따라 공인과 계인, 시전 상인을 인솔하여 공시인 순막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공시인

39) 노혜경, 「공시당상(貢市堂上)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의 비변사와 이정(釐正) 행정」, 『역사와 실학』, 2019, pp.141-171.

40) 순막(詢廩)은 백성에게 어려움을 묻고 청취하는 제도.

순막이 끝나면 국왕은 비변사에게 순막을 시행한 소회를 참작하여 회啓하도록 했는데, 이 때 왕은 폐단을 정리해 주거나 혹은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등 조처를 내렸다.⁴¹⁾ 바로 이같은 관서별 貢人이나 貢契의 上言과 上疏, 그리고 조치내용을 함께 수록하여 영조 29년(1753년)에 발간한 책이 바로 『貢弊』이다. <그림11>



<그림11> <공폐(貢弊)>5, ‘沙器契人’, 영조 29년(1753), 서울대 규장각

『貢弊』 가운데 자기계 관련 내용으로는 「盤沙器契人」과 「沙器契人」 등 2개의 항목이 정리되어 있다. ‘盤沙器契’가 정확히 어떤 성격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도자기와 목기등을 납입하는데 관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沙器契’는 도자기만을 취급했던契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가지 항목이 별도로 작성된 것을 보면 반사기계와 사기계가 서로 다른 성격이었을 것이다. 반사기계인 관련한 내용을 보면 첫째, 반사기를 한 번 사용하고 나면 파손되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니 향후에 여러 宮家와 掖庭署⁴²⁾의

41) 김정자, 「19世紀 後半 政局의 動向과 市廳政策－高宗 즉위년(1863)~高宗 31년(1894) 貢市人 詢癘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2, 2017, pp.285-328.

42) 조선시대 왕과 왕족의 명령 전달, 알현 안내, 문방구 관리 등을 관장하던 관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5236>

하인배, 각 관사의 하인이 차용하는 것을 일절 금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반사기를 行下하거나 차용하는 병폐가 크니 宮家와 하인배들이 사용하는 것을 금하도록 했다. 그리고 22개 조목으로 나누어 반사기계가 취급하는 물품을 열거했고, 이에 대해 호조에 분부하여 낭청을 정하고 그 진배에 응할 곳과 부당한 곳을 하나하나 조사하여 드러내도록 했다. 이어 부당한 곳에는 시행하지 말며, 폐습을 답습하는 관원은 죄를 논하도록 했다.⁴³⁾

또 사기계인의 上言으로는 謁聖庭試⁴⁴⁾와 文臣殿講 때, 승정원 서리가 마목기(磨墨器)라고 하면서 자완 5개, 대접 5개, 사발 5개, 보시기 5개를 번번히 가져다 사용하는 것에 대한 폐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알성정시와 문신전 강때 마목기는 工曹의 방구리를 진배하는 것이 정례이니 승정원 하인배가 빙자하여 함부로 거두는 것에 대해 금단하도록 했다. 또 종친부에서 진향할 때, 唐器皿을 가져다 쓰는데 이 또한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니 영구히 막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이미 정례화되어 버려 혁파가 어렵다 했고 사용 후 깨져서 상하는 것들은 각 관청에서 값을 치르게 하라고 했다.⁴⁵⁾ 앞의 내용으로 보면, 18세기 중반 이전, 반사기계나 사기계는 貢契의 일원으로서 왕실용 자기 수요를 감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1753년의 『貢弊』에는 중국산 혹은 중국풍 도자기로 추정되는 唐器皿은 사기계가 맡아 조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작 『貢弊』에는 별도의 '당사기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의궤류에서도 1759년 이전 자료에서는 '당사기계'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확상 18세기 중반경에는 아직 '당사기계'는 별도로 구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당사기계의 폐지 시점에 대해서는 19세기 말경으로 확인이 가능하

43) 22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변사 지음, 조영준, 최주해 역해, 『공폐-조선후기 공물제도 운영의 병폐』, 아카넷, 2019, pp.320-325.

44) 궁궐마당에서 치르는 알성시.

45) 비변사 지음, 조영준, 최주해 역해, 『공폐-조선후기 공물제도 운영의 병폐』, 아카넷, 2019, pp.520-523.

다. 分院貢所의 貢人이자 燐磁會社 운영에 참여했던 池圭植의 『荷齋日記(1891~1911)』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정황이 기술되어 있다.⁴⁶⁾ “1891년 9월9일 맑음, 아침을 먹은 뒤 남대문 밖으로 나가 權昌仁의 器廬에 이르니...(중략) 兵曹 結束色에서 기전 所任을 불러 茶鐘과 요강을 진상하라고 엄히 독촉했는데, 趙春根이 “일찍이 진상한 전례가 없다.”고 답하여 끝도 없이 서로 고집하다가 돌아왔다고 하였다. 이는 唐砂器契에서 진상하던 것이다. 지금은 이미 폐지했으니 누가 진상하겠는가?(후략)” 또 1898년 4월 24일에는, “沙椀 100개, 唐宗子와 小接巾 각각 50개, 食所羅 大小 각 2개, 乳朮 20개를 구워서 만들라고 했다. 內下 靑彩器皿은 독촉을 받았다고 했다.”⁴⁷⁾ 이 내용으로 보면, 分院貢所期(1883-1895)에 해당하는 1891년에는 당사기계가 납입하던 기물들을 분원에 와서 책임을 물었을 때 황당해 하는 상황이었으나, 1898년에는 소위 ‘당종자’나 ‘청채기명’ 등을 분원 공소가 아예 납입까지 책임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분원이 대한제국기에 분원공인들과 중앙 관료들의 舍資로 燐磁會社(1897-1899)로 일신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상용품과 제기, 지식등을 만들어 왕실과 시장에 판매했고, 도자기 제조사로서 위상을 가다듬었던 시기에는 그 생산에 대한 태도나 입장이 달랐던 것이다.⁴⁸⁾ 결국 지규식의 일기를 통해 19세기말 분원에서는 이른바 ‘당사기’를 제작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사기계와 사기전 관련 기록을 살펴본 바 각사의 자기 소용 물목으로 보면 당사기 관련 기록은 18세기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만 궁평리 관요지 출토 요도구 명문을 통해 ‘당사기’의 범주에는 분원에서 제작하던 백자류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18세기 중반에는 궐내에 당사기를 보관하던 창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당사기의

46) 池圭植, 『荷齋日記』 卷1, 辛卯陰晴錄, 1891년 9월 9일.

47) 池圭植, 『荷齋日記』 卷5, 1898년 4월 24일.

48) 박은숙, 「대한제국기 燐磁會社의 설립과 운영 : 1897~1899년 社員공동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제149호, 2010, pp.279-319.

進排는 처음에는 사기계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차후 당사기계라는 구체적인 명칭이 등장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비변사에서 서울 시전의 상소와 이에 대한 조치를 각전별로 나누어 기록한 『市弊』도 주목된다. 『貢弊』에 사기계에 대한 사례가 실렸던 것처럼 『市弊』에는 시전의 여러 상점들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 沙器塵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총 57개 시전에서 올린 85개의 上言⁴⁹⁾과 각각에 판결이나 지시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이 책 역시 1753년(영조29)에 작성되었으며 총 3책으로 도자기에 대한 내용은 그릇대여점인 ‘內貫器塵’ 항목에서 볼 수 있으며, 현재 제2책, 제3책만 전하므로 사기전에 대한 내용이 1책에 수록되었었을 가능성도 있다.⁵⁰⁾ 조선후기 시전과 한양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며, 여러갈등의 양상과 그 해결과정이 드러나 있다. 이밖에도 사기전에 대한 기록은 『東國輿地備考』에서 砂器塵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나며, 한성부 중부 서린방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¹⁾

5. 맺음말

지금까지 의뢰와 사료 검토를 통해 ‘唐沙器’의 용례와 의미를 추론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사기계와 반사기계, 당사기계 등 서로 다른 주체들을 통해 왕실에 도자기를 조달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조선후기 백자에 대한 연구가 분원의 운영과 변화과정에 주목했다면, 본 연구는 의뢰 기록 등을 통해 분원 자기의 왕실 납입이 일찍부터 공계의 운영구조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당사기계, 사기계, 반사기계 등이 연결되어

49) 백성이 제출한 疏狀을 말함.

50) 비변사 편, 조영준 역해, 『市弊, 조선후기 서울상인의 소통과 변동』, 아카넷, 2013, pp.112-115.

51) 『東國輿地備考』(국립중앙도서관) : 비변사 편, 조영준 역해, 위의 책, p.115.

있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용례를 통해 ‘당사기’ 혹은 唐器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 해 본 것이다.

기록자료를 통해 사기계의 명칭과 역할은 18세기 중반경부터 확인되었는데, 이는 영조대 『貢弊』가 출간되어 사기계의 역할을 알 수 있었던 정황과도 맞물린다. 결국 17세기 대동법 실시와 18세기 말 장인등록제 폐지에 따른 수공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왕실은 일정한 현물을 확보해야 했고, 분원자기도 생각보다 일찍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18세기 중반에는 이미 貢契로서 여러 사기계가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즈음하여 당사기 계도 출현했을 것으로 보았다.

『貢弊』와 더불어 시전의 폐해를 보여주는 『市弊』에는 그릇을 임대해 주는 ‘內貰器廩’ 항목도 있었다. 각사와 아문들에서 값을 치르지 않고 그릇을 빌려가 사용한 후 여러해 지나서야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따른 민원이 컸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사기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었으므로 그 조달은 사기계, 사기전, 세기전 등이 모두 동원되었을 것이다.⁵²⁾

일반적으로 도자사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분원의 변화 과정에서 왕실도 진상자기 외에 구매를 통해 수요를 감당하게 되면서 재정악화와 분원 자기 생산의 통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19세기 말에는 민영화로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해왔다.⁵³⁾ 그 과정에서 정조 17년(1793)에는 기교스럽고 사치스러운 제품의 제작과 사용을 막기 위해 甲燭 제품의 제작을 금하면서 일시적으로 원료등을 절약하는 효과를 내기도 했다.⁵⁴⁾ 그러나 살펴본 바대로 이미 왕실에서도 당사기계를 통해 甲器나 畵器같은 기물들을 조달하고 있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8세기 중반 이후의 각종 의궤 기록과 함께, 17세기말~18세기초에

52) 1877년 신정왕후 7순 축하연을 기록한 『丁丑進饌儀軌』에는 “...砂硯滴砂溺江砂唾口 各五箇卽刻進排...工曹 司饗寺 繕丁監 校書館 砂器廩 唐砂器契 鴨島契”.

53) 최경화, 위의 논문, pp.19-20.

54) <日省錄> 15년(1791).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광주군의 관요지에서 당사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명문이 적힌 요도구가 발견되어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각종 사기계의 등장과 唐沙器 같은 청화백자 내지는 고급자기 등을 각별하게 인식하면서 제작과 유통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 이미 18세기 전반 이후부터로 소급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록의 용례와 출토품을 통해 ‘당사기’가 중국도자기 뿐 아니라 조선에서 제작된 중국풍 백자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참고문헌

『嘉禮都監儀軌英祖貞純王后』

『經國大典』

『東國輿地備考』

『世祖實錄』

『塔源譜略修正時校正廳儀軌』

『成宗實錄』

『日省錄』

『丁丑進饌儀軌』

『進宴儀軌』,

『進饌儀軌』

『荷齋日記』

『和吉翁主嘉禮謄錄』

구혜인, 「朝鮮 後期 陽刻白磁 研究」, 『美術史學研究』 263, 2009, pp.99-137.

김기혜, 「조선 후기 크락(Kraak) 양식 청화백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15.

김미경, 「19세기 조선백자에 보이는 청대 자기의 영향」, 『강좌미술사』 33, 2009, pp.293-327.

김은경, 「朝鮮의 淸瑤瑯瓷器 유입경로와 수용태도 연구」, 『미술사학』 37, 2019, pp.115-140.

김정자, 「19世紀 後半 政局의 動向과 市廛政策－高宗 즉위년(1863)~高宗 31년 (1894) 貢市人 詢癘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2, 2017, pp.285-328.

노지현, 「조선후기 백자의 박쥐문[蝙蝠文]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석사논문, 2021. pp.135-140.

노혜경, 「공시당상(貢市堂上)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의 비변사와 이정(釐正) 행정」, 『역사와 실학』, 2019, pp.141-171.

박수정, 「17-20세기 동아시아 망문(網紋)백자의 제작과 확산」, 『동양미술사학』

- 17, 2023, pp.171-197.
- 박은숙, 「대한제국기 燐磁會社의 설립과 운영 : 1897-1899년 社員공동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제149호, 2010, pp.279-319.
- 박정민, 「조선 전기 관요의 성립과 그 명칭에 대한 일고찰, 『미술사와 문화유산』 3, 2014, pp.85-114.
- 박혜원, 「朝鮮末期 壽福字文 靑畫白磁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11.
- 방병선, 「고종 연간의 분원 민영화과정」, 『역사와 현실』 33, 1999, pp.183-216.
- 비변사 지음, 조영준, 최주해 역해, 『공폐-조선후기 공물제도 운영의 병폐』, 아카넷, 2019, pp.320-325.
- 비변사 편, 조영준 역해, 『市弊, 조선후기 서울상인의 소통과 변통』, 아카넷, 2013, pp.112-115.
- 서예진, 「『영정모사도감의궤(影幀模寫都監儀軌)』에 수록된 편연지 재현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8. pp.10-14.
- 송인희, 「1848년 진찬의궤의 당화준(唐畫樽) 사용의 의의」, 『한국문화연구』 40, 2021, pp.81-132.
- 아사카와 다쿠미 지음/ 심우성 옮김, 『조선의 소반·조선도자명고』, 학고재, 1995.
- 이보름, 「조선후기 채색(彩色)백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18.
- 이수미, 「朝鮮後期 山水文 靑畫白磁 研究」,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13.
- 이명은, 장서각 소장 왕실 발기의 주제 분류와 복식자료 고찰, 장서각42, 105-145.
- 장효진, 「18-20세기초 中國 靈芝草花文 靑畫白磁의 유행과 전파」, 『美術史學研究』 282, 2014, pp.117-149.
- 장효진, 「19세기 말-20세기 초 중국 요업(窯業) 공장(工匠)의 조선 도래」, 『한국문화연구』 32, 2017, pp.7-38.
- 전승창, 「京畿道 廣州 官窯의 設置時期와 燐造官」, 『미술사연구』 22, 2008, pp.199-219.
- 최경화, 「朝鮮後期 分院里 時期 官窯白磁 研究 -1752-1895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논문, 2013, pp.102-104.

- 최우혁, 「19세기 진찬의례와 군문의 재정 활용」, 『국학연구』 45, pp.231-275.
한혜선, 「17세기 의궤 속 화원이 사용한 백자의 종류와 지급방식」, 『한국문화연구』 42, 2022, pp.39-75.

VARIOUS INFERENCES ABOUT *DANGSAGI*(唐沙器)

JANG NAMWON (JANG NAM WON)

This study infers the usage and meaning of ‘Dangsagi唐沙器’ through review of *Uigwe*(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and historical records. In this proces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situation in which ceramics were procured to the royal family through different entities such as *Sagigye*(沙器契), Reflection Machinery, and *Dangsagi*. While most studies on white porcelain in the late Joseon Dynasty focused on the operation and change process of *Bunwon*(分院), this study shows, through *Uigwe* records, etc., that the supply of *Bunwon*, porcelain to the royal family was made within the operational structure of the public circles from early on, and in the process, specifically, it was possible to see the possibility that fraud machines, reflection machines, etc. were connected. And through usage examples, we tried to make the meaning of ‘Dangsagi’ or Daggi a little more specific. Through recorded usage examples and excavated items, we were able to find out that *Dangsagi* meant not only Chinese porcelain but also Chinese-style white porcelain produced in Joseon.

Through archival materials, the name and role of *Sagigye* have been confirmed since around the mid-18th century, and this coincides with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role of *Sagigye* became known through the publication of 『Gong-pae貢弊』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Ultimately, in the process of privatizing handicraft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Daedongbeop*(大同法) in the 17th century and the abolition of the artisan registration system in the late 18th century, the royal family had to secure a certain amount of goods in kind, and it can be seen that *Bunwon* porcelain was influenced earlier than expected. Accordingly, it can be seen that in the middle of the 18th century, several *Sagigye* were already active as money makers, and it was assumed that *Danggi*(唐器) also appeared around this time.

In general, in ceramic history studies, it has been understood that in the process of changes in the *Bunw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royal family began to meet demand by purchasing other than dedicated to the royal family porcelain, which led to financial deterioration and difficulties in controlling *Bunwon* porcelain production, which eventually led to privatization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However, as we have seen,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royal family was already procuring objects such as textiles and paintings through *Dangsagi*(唐沙器).

In addition to various *Uigwe* records from the mid-18th century onwards, a sagger cover with an inscription presumed to refer to the *Danggi* was discovered at an official kiln site in Gwangju-gun, Gyeonggi-do, which is presumed to have been in operation in the late 17th to early 18th centuries, raising awareness of the method of self-procurement for *Bunwons*. A transformation is required. This is because changes i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began to occur with the emergence of various ceramics and special recognition of blue-and-white porcelain such as *Danggi* porcelain and high-quality porcelain, which can be traced back to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Key Words : *Dangsagi*(唐沙器), *Danggi*(唐器), *Sagigye*(沙器契), *Bunwon*(分院), blue-and-white porcelain, *Uigwe*(*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